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 제공

OCI, '별별동행 2019' 군산예술의 전당서 개막... 신진작가 18명의 대표작 35점 선보여

OCI(대표 이우현)가 지난 22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별별동행(별별동행) 2019' 개막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OCI 미술관 이지현 관장과 관계자, 강민준 군산시장과 김경구 군산시의회의장, 김동수 상공회의소 회장, 채정훈 민주당 군산위원장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별별동행은 OCI(OCI미술관과 함께 2010년부터 격년으로 운영하는 전시회다.

5회째를 맞는 올해 전시는 군산을 시작으로 광양, 포항 등 OCI의 주요 사업장이 있는 도시를 순회하며, 지역민에게 문화 향유의 기회를 제공할 계획이다.

전시는 활기찬 색과 참신한 발상이 주를 이루는 회화 작품과 소재의 다양성을 보이는 설치작품, 디지털 매체를 적절히 활용한 미디어 작품 등으로 구성됐다.

한철 OCI 군산공장장은 "혁신적인 아이디어와 독자적인 기법을 구사하는 젊은 예술인들의 창의적인 생각에 공감해보자는 취지로 전시가 마련됐다"면서 "바쁘고 단조로운 일상에서 벗어나 문화 향유의 시간을 갖게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지현 미술관장은 "전시는 OCI미술관의 대표적 신진작가 양성사업인 'OCI영크리에이티브'를 통해 선발된 작가 9명과 'OCI미술관 창작스튜디오' 입주작가 9명이 창작한 총 35점의



지난 22일 군산예술의 전당에서 열린 '별별동행(별별동행) 2019' 개막식에서 김택중 OCI 사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작품들을 담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기업과 지역사회, 문화예술인 등이 함께 만들어가는 별별동행전이 지속해서 발전하기를 기원한다"며 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OCI는 군산시와 협약을 맺고 러시아 국립 아이스 발레단 공연, 조수미 데뷔 30주년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 나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오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다양한 상상력 추구하는 '통통'

사단법인 돌레, 문화기획자양성프로그램 운영

정읍시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 단인 사단법인 돌레는 내달 13일과 20일 정읍시민들을 대상으로 문화기획자 양성프로그램인 '통통'을 운영한다.

'통통'은 새로운 실험과 도전, 다양한 상상력을 추구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 분야의 우수한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준비됐다.

사단법인 돌레 제1강의실에서 진행되는 이번 프로그램은 '문화를 열다-답다-있다-만들다'라는 4가지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되어 있다. 공연기획에 대한 전문 강연자의 강의와 기획안 작성 등으로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이어 참가자의 기획안 발표와 피드백으로 일정이 종료된다.

희망자는 오늘부터 돌레 홈페이지(dulle.or.kr)를 통해 신청서를 다운 받아 내달 5일까지 온라인(E-mail)으로 신청하면 된다.

문화기획에 관심 있는 15명을 선착순 모집하며 만 19세 이상 정읍시민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안수용 돌레 이사장은 "문화기획자 양성



프로그램 '통통'은 이번 공연기획을 시작으로 연도별 시리즈로 운영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의 문화역량 강화와 시민이 주도하고 즐기는 문화예술 환경 조성에 기여 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단법인 돌레 홈페이지(dull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임진아 팀장, 문체부 장관상 수상...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 기여 공로 인정

전북문화관광재단은 문화사업팀 임진아 팀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인생 나눔'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고 지난 22일 밝혔다.

임 팀장은 인문정신문화의 사회적 확산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재단은 2017년부터 '인생 나눔 교실'에 참여해 지역아동센터, 중학교, 군부대, 보호관찰소 등을 대상으로 총 100여개 멘티 그룹과 1400여회 멘토링을 진행하며, 호남권만의 '사람 중심' 사업을 운영해 좋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지난해 4억3500만원에서 5억원으로 예산이 확대되는 성과를 냈다. 이는 올해 지역별 차등 지급하는 예산에서 가장 높은 지원에 해당한다.

임 팀장은 "올해는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다양한 이슈를 겪는 멘티를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 인생 3막을 고민하는 중장년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등으로 공유와 확장을 넘어 가치의 확산에 초점을 맞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생 나눔 교실은 문체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와 전북문화관광재단이



전북문화관광재단 문화사업팀 임진아 팀장이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한국문화예술포럼위원회가 주관하는 '2018 인생 나눔' 사업에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받았다.

주관하는 인문 멘토링 사업이다.

선배 세대(멘토)가 아동, 청소년 및 청년과 같은 새내기 세대(멘티)와 만나 서로의 인생

경험을 나누고 그 속에서 삶의 지혜와 나눔, 소통, 배려 등의 인문 가치를 공유하는 세대 간 인문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뉴시스

신명나는 정읍농악 한판 '벚꽃길 호남우도농악을 담다'

정읍시립농악단, 31일 정읍천변 어린이축구장 특설무대 앞 정기공연

정읍시립농악단이 오는 31일 신명나는 정읍농악 한판을 펼친다.

'벚꽃길 호남우도농악을 담다'라는 이름으로 오후 3시 30분부터 90여 분간 정읍천변 어린이 축구장 특설무대 앞(우천시 정읍시예술회관에서 상반기 정기공연이 진행된다.

공연은 흥남리를 벚꽃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정읍농악의 흥과 멋을 알리기 위해 벚꽃 축제 기간에 맞춰 열린다.

이번 공연은 다채로운 가락과 춤사위가 어우러진 부안농악 판굿과 변화무쌍한 진법과 화려한 춤사위가 돋보이는 정읍농악 판굿, 그리고 두 농악단의 합동극 한마당이 펼쳐질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정읍농악은 호남우도농악의 발상지로 역사적 의미뿐만 아니라 예술성과 대중성을 갖춘 전국 최고의 농악으로 평가받고 있다"며 "이번 공연에서 그 위상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라며 많은 관광객과 시민들의 관람을 당부했다.

한편 정읍시립농악단은 국내외 초청과 교류 공연을 통해 호남우도농악의 뿌리인 정읍농악을 알리고 있다. 또 지역예술단체와 함께



하는 공연을 통해 정읍시민의 문화수준 향상과 문화예술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정읍=김대환 기자

"평안을 주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의 다른 이름은 사랑입니다.

예수병원은 121년 동안 생명을 지켜온 사랑으로

희망의 내일을 열어 갑니다.

환자경험 중심, 수준 높은 진료환경으로 행복을 키우는 예수병원

예수병원은 언제나 당신 곁에 있습니다.

「내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줄 수 있게 하옵소서」

1897년, 예수병원 설립자 마티 잉골드 일기

